

李 대통령 “국가 위기엔 목숨 걸어야”

한나라 지도부 회동, 공직자 책임감 강조

“예산안 통과 즉시 집행...인기 연연 안해”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자세와 인식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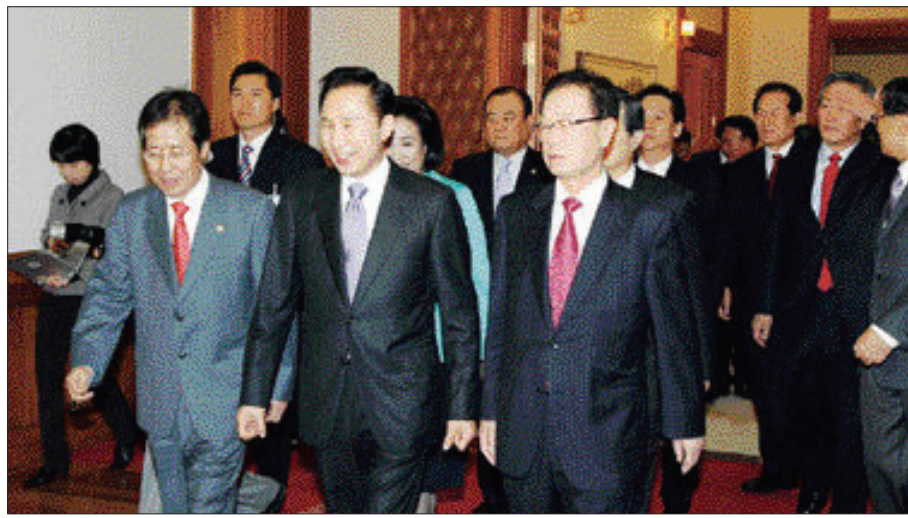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최고위원들과 조찬 회동을 갖고 “나라가 어려울 때 일시적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며 “공자님 말씀에 견위수명(見危授命·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던지는 자세), 견리사의(見利思義·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듯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던지는 것이 선비의 도리”라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들이 책임지는 자세로 일해야 하며, 장관들이 일차로 책임지는 자세로 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일시적 인기 연연에 연연하지 않고 목숨을 던질 자세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특정한 기초부터 다져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울 때 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과거 10년 전 외환위기 때 노동법과 금융개혁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해외 투자자들의 불신을 샀다”면서 “이번에 여러 나라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개혁 방안들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조기 집행을 필요하다”는 허태열 최고위원의 견이에 대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만 통과시켜주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정 집행이 효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조찬 회동을 갖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되도록 하겠다”면서 “확실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미국은 대량 해고가 시작돼 감원사태가 불고 있는데 한국은 기업들이 협조를 잘해 아직은 대량해고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으나 경기가

나빠지면 내년부터 해고가 이곳 저곳에서 생기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대남 강경 노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의연하게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태도를 변화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임동욱 기자 tuim@

李 대통령, 3당 대표 회동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주 초 여야 3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내주 초 여야 3당 대표들을 초청해 G20 금융정상회의와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금융·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됨에 따른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을 최소화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각 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김해 상가=노건평 뭉’ 태풍의 핵

정화삼씨의 사위인 이모씨 명의의 경남 김해 소재 상가 점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 뭉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7일 김해상가가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상가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의 1층에 있으며 정씨 형제가 세종캐피탈 흥기옥 사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석 달 뒤인 2006년 5월 이씨 명의로 9억 2천만원에 매입했다.

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철은 이에 따라 2006년 7월 홀 사장이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참여정부가 끝난 올해 3월 해지해 정씨 형제나 이씨가 임의로 팔 수 없도록 한 것은 노씨 뭉에 대한 ‘안전장치’가 아니냐고 보고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씨 측이 이 건물을 몇 차례 매각하려 했으나 근저당권 때문에 무

상가 점포에 근저당권 설정...盧씨 안전장치 의혹

檢, 관련자 진술 확보...정황·물적 증거 확보 총력

검찰은 이 건물이 ‘노씨의 뭉’이라는 당사자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이 현재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진술’도 당사자조차 아닌 관련자 전언이거나 당사자 진술이라 하더라도 입증자료가 뒷받침되지 않고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법정에는 내밀 것이 못 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노씨는 최근 “생사람 잡지 마라. (나는) 내동 상가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억울한 심정을 말도 못하고, 죽는 사람 심정을 알겠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산됐고, 이 건물을 살 돈을 건넸던 홍 사장 측이 통상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근저당권 설정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가 명의가 엄연히 이씨로 돼 있는데다 이런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어려워 검찰은 홍 사장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경위와 사례비 30억원의 할당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아울러 이르면 주말께 노씨를 불러 상가의 실질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영입수익이나 상가 임대소득을 챙겼는지 등을 쫓 방침이다. /연합뉴스

“경제·민생 살리기 최우선” 당·청 공감대 형성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27일 오전 청와대 조찬 회동은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한 당·청 수뇌부의 모임이나 다름없었다.

이 대통령의 미국 남미 순방결과를 설명하고 정국회 문제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지만, 이들 문제가 경제·민생 살리기와 뿔 수 없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당 최고결기구인 최고위원들을 초청, 조찬을 함께한 것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음을 알리고, 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관 대변인은 오전 7시30분부터 100분간 진행된 조찬에 대해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현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서민 대책을 어떻게 챙길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갔다”고 소개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보다는 그동안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전달하는 동시에 정부의 경제·민생 정책 가운데 보완해야 할 점을 건의하는 등 ‘쓴소리’에 포커스를 맞췄다.

박희태 대표는 “정부가 돈을 풀다고 하지만 현장 창구에서는 돈이 메달렸다는 얘기가 많다”면서 “신규대출, 대출연장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다”며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서민의 겨울나기’에 중점을 뒀다. 정부가 최근 마련한 7천160억 원 규모의 동절기 서민대책을 염두에 둔 것 “일부 언론이 서민 겨울나기 추가지원 대책을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하더라”고 소개하고 “집행이 중복되지 않고 실효성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대수생 선형학습반 / 예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백암은천과 신비의 비경인성

물풍도 득도 2박3일 매주 토요일 출발 1인 26만원

3박4일 2박3일 1박2일

1박2일 (전문지식)

2박3일 (전문지식+인성)

3박4일 (전문지식+인성+자연)

주니산항공관광여행사

리첸 RITCHEN

리첸 RITCHEN 광주직영점시장 OPEN

010-215-2272